

## 성령강림이 오기 전에 신자들이 한 일

성령강림 전에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모이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합니다. 신자들은 첫 번째 성령강림 때 무엇을 하나요?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령강림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재연합니다. 구약의 바벨탑 이야기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이 되기 위해 하늘까지 탑을 세웠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말을 흠여 놓음으로써 이 허영 프로젝트에 응답한 인류가 각자의 언어를 가진 라이벌 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강림 이야기는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Shavuot는 유대인의 봄 축제입니다. 모든 국가의 독실한 사람들이 Shavuot를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영적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이 겸손의 프로젝트에 응답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50일 동안 숨어 지내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초대하러 밖으로 나옵니다.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은 구속주를 방금 돌려받은 세상을 사면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사랑과 약속을 쌓아 두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성령을 맞이하려면 최초의 신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고’, ‘받고’, ‘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신자들은 첫 번째 성령강림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은 위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적인 영감을 줍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맞서기 위해 첫 제자들을 안전한 공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 위로 내려온 들불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에 헌신했습니다. 평범한 삶, 빵 나눔, 기도하기 등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공유하고, 팔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쁘고 관대 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이 정신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함께 살고 축하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제자 만들기 “go-make-disciple”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가려면,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신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숙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이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 우리 차례입니다. 코비드의 해에서 연구는 호주 인구의 절반이 정상적인 것보다 삶의 의미에서 사망률을 41 %가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35%가 더 많이 기도 했습니다. 몇 년의 별거와 불안 끝에 오늘 교회의 생일에 미사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교리 수련을 마치고 우리는 성체성사 예식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의 봉사적 삶 안에서 상처받은 모든 마음을 치유하고, 쓰러진 영혼을 들어 올림으로써 하느님의 영은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직 미사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증거가 담대해 지도록 기도 하십시오. 다음에 오실 때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도 미사에 초대 하십시오. 교구 사제 및 다른 교구민과 함께 우리 대교구 선교 계획 “go-make-disciple”(나가서 제자를 만드세요)를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본당에서 시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 선택하십시오. 성령강림은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분별할 때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성령강림은 우리가 ‘모이고’, ‘받고’, ‘돌려 줄 때’ 우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성령강림은 우리가 모여서 선포하고 증거 할 때 우리를 앞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성령강림은 위대한 파견을 위해 함께 모이는 위대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몰이해와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사랑의 정신에 의해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십니다. 오직 그 성령의 지혜로만 거짓말쟁이가 회개하고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봉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의 힘으로 죄가 용서되고 사람들이 화해 할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의 숨결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결합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다시 탄생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에 성령이여 오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탄생 시키소서. 당신의 모든 영적 선물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소서.

시드니 대교구장 안토니 피셔 대주교

